

#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 Content Analysis of Mother's Pregnancy · Childbirth & Child Rearing on PC Communication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과  
조교수 김 영 주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Assistant prof. : Kim, Youngjoo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deas about childrearing represented on the cyber space.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data are articles on the Hitel bulletin board during 1 year.

It is found that these articles dealt with problems of practices in the pregnancy-delivery, nurturing, teaching and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so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se articles put great emphasis on nurturing. For example, there are many articles about caring, development, health and hygiene of child. And from 1st to 6th month, there are many articles about nurturing. After 7th month, many articles about teaching and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social institutions are appeared. So from these results we might conclude that many functions of the home are transmitted to society too early.

주제어(Key Words): 아동양육실제(child rearing practice), 사이버공간(the cyber space)

## I. 문제의 제기

생산양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산업혁명이 생산양식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보화의 흐름 역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선주, 2000).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이버(Cyber)라는 용어는 이러한 변화를 지칭하는 일종의 상징어가 되었다(홍성태, 1999: 43-69). 사이버 공간이란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적 경험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용어(홍성태, 1999: 43-69)로 기술적으로는 '가상현실기술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리킨다(Gibson, 1984).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현실의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 통신망으로 불리는 새로운 매체를 가리킨다(홍성태, 1999: 43-69). 컴퓨터 통신망은 또한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과 같은 PC 통신망과 컴퓨터 통신망들의 통신망인 인터넷으로 대별될 수 있다. 둘 다 전화나 LAN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PC 통신은 유료 가입자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경험을 나누는 곳이며, 반면 인터넷은 자신의 입장이나 목적을 위해 개설된 사이트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PC 통신이 양방향적이고 서로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면 인터넷은 상업적이거나 다른 의도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정보를 미리 표방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다 일방향적이고 PC 통신에 비해 평등한 정보의 공유가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이든 PC 통신이든 이제 정보화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문화적 변화를 함의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정보화가 여성 혹은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논의의 대립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정보화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대립을 들 수 있다. 또 가족 안에서 여성의 삶은 정보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정보화로 인한 재택 근무는 여성에게 직업과 가정을 하나로 묶어 오히려 역할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정보화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인적 특성이 여성에게 더 적합하므로 정보화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은 실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여져 있다. PC 통신 천리안의 경우 98년 여성의 비율은 32%에 불과해 93년 여성의 비율인 12%(1999년 8월 4일 동아일보)에 비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성비보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소외는 여성들이 정보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기술이나 기계를 잘 익히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정보화의 필수 매체인 컴퓨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http://www.jubu21.or.kr>). 그 결과 여성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그것을 인터넷 상의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정보 리터러시(情報文解)<sup>1)</sup>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성이라는 집단 내에서도 연령이 낮은 여성 집단과 연령이 높은 집단의 여성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현재 전체적인 여성들의 온라인 이용 증가는 대부분 20대나 30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주, 2000).

여성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있다. 이 시기의 여성이 아기를 낳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이 역할에 만족할 때는 건강한 가정의 기틀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현대

1) 정보 리터러시(情報文解)-다양한 상황에서 정보공학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며 전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보접근, 정보입수, 정보이해, 정보처리, 정보전달의 여섯가지로 구성된 종합적 능력(<http://www.jubu21.or.kr>)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이 시기의 여성들이 이러한 어머니 역할을 획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먼저, 전통 사회에서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및 손위 세대의 친척여성들을 통해서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족 구조가 직계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뒀에 따라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거나 아동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머니의 가정 내 고립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가정내 고립은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 있거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영아를 두었을 경우 자녀로 인해 외출하기도 어렵거니와 영아 양육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화의 몇 가지 특성은 임신과 출산기의 2-30대 여성들이 가정내에 고립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PC 통신은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기의 여성이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게 한다. 실제로 PC통신사 중 하나인 하이텔 주부동호회의 경우 임신 유아에 관한 게시판의 글은 2000. 1. 11부터 2000. 1. 20일까지 열흘동안 총 325건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기간동안 4세 이상의 자녀에 관한 글을 쓰는 유치방의 경우 104건,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글을 쓰는 초등방의 경우 28건, 중고등학교 자녀에 관한 글을 쓰는 중고등방의 경우 단 7건임을 고려할 때, 임신과 출산, 영아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20-30대 어머니의 정보화 사회에의 참여도와 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아를 둔 20-30대 어머니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는 그들의 다른 기혼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으로 인해 정보화가 친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임신이나 영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내 고립으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현상을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임신이나 출산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20-30대 기혼 여성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에 고립된 임신 출산기의 여성이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정보매체, 특히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매체는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가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녀양육 관한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양질의 정보보다는 저질의 정보가 난무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해 놓은 육아 사이트는 정보의 편향성과 편향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구매를 용이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

그에 비해 PC 통신은 보다 양방향적이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게시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자가 됨과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목적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상에 동호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느낌이나 경험,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PC 통신의 게시물들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적이나 의도가 적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양방향적이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PC통신의 게시판에 올려진 임신과 출산, 영아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분석하여 어머니의 아동 양육 실체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가정내 고립으로 인해 인터넷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홈페이지나 육아 사이트 개설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영아 양육

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영아 양육에 관한 주제 유목별 하위 영역의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영아 양육에 관한 주제 유목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PC통신에 나타난 임신부와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차배근, 1990). 본 연구는 연구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 대상 선정, 분석 유목 선정, 분석 단위 선정, 집계 체계 선정, 자료 처리 등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1. 분석 대상 선정

1999년 10월 16부터 2000년 10월 16까지의 일년동안 하이텔 「주부동호회」의 임신 유아에 관한 코너에 올라온 게시물 총 10,798건 중에서 신변 잡기와 24개월을 초과하는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제외한 임신 출산 및 24개월 이하의 영아에 관한 게시물은 총 1,990건이었다. '하이텔 주부동호회'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텔 주부동호회가 임신과 영아 양육, 유아 양육, 초등학생 양육, 중고등학생 양육에 관한 게시판과 두고 있어 타 통신사에 비해 아동의 연령별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유니텔 주부동호회 1개, 천리안 주부 동호회 3개, 나우누리 1개). 이와 같이 하이텔 주부동호회의 아동 양육에 관한 게시판이 다른 통신사의 주부 동호회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하이텔 주부동호회의 회원들이 아동 양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2. 분석 유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베렐슨(Berelson, 1952)이 제시한 분석 유목 중에서 주제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제 분석 유목을 정하기 위하여 Nye(1976), Gilbert & Hansen(1983), 유안진(1992) 신앙재와 김영주(1993)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영아 양육에 관한 주제를 임신·출산 유목, 보육 유목, 교육 유목, 훈육 유목, 상담 유목, 사회 제도 연계 유목, 일반 유목 등 7개 주제 분류 유목을 선정하였다. 각 주제 분석 유목의 개념 정의와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출산 유목

태아의 발달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와 건강하게 출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크게 태아에 관한 영역과 임신부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었다.

#### 2) 보육 유목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인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발육 일반 영역, 돌보기(養兒) 영역, 건강·위생 영역, 영양 영역 등이 있다.

#### 3) 교육 유목

교육 유목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제반 측면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신체적 영역, 정서·사회적 영역, 인지적 영역, 놀이지도 영역, 특수아 교육 영역 등이 있다.

#### 4) 사회 제도 연계 유목

사회 제도 연계 유목은 아동을 일반 사회 제도나 시설에 연결시키는 교량적 활동을 의미하며(신양재, 김영주, 1993), 하위 영역으로는 의료시설 연계 영역, 아동 보육시설 연계 영역,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영역, 학교 연계 영역, 대중매체 연계 영역이 있다.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이나 유아교육 시설 연계 영역에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가정 밖의 아동

교육이나 보육 시설에 참여하는 경우를 다 포함시켰다.

### 3. 분석 단위 선정

이 연구에서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아동 양육에 관해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석 단위인 아이템(item)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아이템이란 하나하나의 기사 전체라든가 한편의 영화·서적·방송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차배근, 1990).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게시물이 한 분석 단위가 되는 것이다.

### 4. 집계 체계

내용 분석에서 분석 단위가 결정되면, 자료의 집계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 내용 분석을 하는 경우, 해당하는 내용 또는 자료가 몇 번이나 나왔으며 또는 그 내용이 차지하는 지면이나 시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록한 뒤 이들을 집계해서 통계적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빈도수, 또는 지면의 분량, 시간량 등을 집계 체계라고 한다(차배근, 1990). 이 연구에서 집계 체계는 빈도수이다.

### 5. 분석 절차

내용 분석에 있어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1) 분석 기준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가지고 분석에 임했다. 먼저 전체 게시물 중에서 임신 출산 및 24개월 이하의 영아에 관한 게시물이 아닌 것은 제외하였다. 또한 영아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신변 잡기나 사적인 이야기는 제외하였다.

둘째, 게시물을 각각의 유목에 포함시킬 때, 제목을 기준으로 유목을 구분하였다. 이는 한 게시물에

영아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게시자가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목으로 표현하리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 2) 분석의 신뢰도

분석 대상 게시물의 약 10%인 200편의 게시물을 무작위 표집하여 연구자와 아동학 박사 2인이 같이 분석한 후, 이들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를 보았다. 분석자들간의 상호 일치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sup>2)</sup>라고 한다. 종합적 신뢰도 계수 공식에 따라 신뢰도를 구한 결과 3인 간의 최종적인 일치도는 .96으로 산출되었다.

### 6. 자료의 처리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얻어진 자료는 각 분석 유목 및 하위 영역별로 해당하는 게시물 건수의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7.5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전체 개관

#### 1) 주제 유목별 분석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에 관한 내용을 주제 유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1990건 중에서 보육에 관한 주제는 1010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 유목이었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 유목(40.3%), 교육 유목(5.5%), 사회 지도 연계

2)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도를 상관 계수로 계산한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차배근, 1990).

$$\text{종합적 신뢰도 계수} =$$

$$\frac{N * (\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1 + (N-1) * (\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

(3.3%) 유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영아 양육에 있어서 보육이 다른 주제 유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에 관한 기사 내용 분석(신양재, 김영주, 1993)에서 보육에 관한 주제 유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의 하위 영역 별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발육 일반 영역이 보육 주제 유목 전체의 27.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돌보기 영역(26.4%), 건강·위생 영역(23.9%), 영양 영역(21.8%) 순이었다. 그러나 신양재와 김영주(1993)의 1920년에서 1980년까지 우리 나라 신문에 나타난 아동 양육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육 주제 유목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다루어진 하위 영역이 건강·위생 영역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당시는 생활 수준과 의료 수준이 낮아 영아 사망률도 높고 질병 문제가 심각했던데 비해 최근에는 건강·위생 영역보다 영아를 잘 발달하는지 여부가 어머니들에

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진다.

임신·출산 유목의 하위영역은 임신부에 관한 영역이 82.3%로 태아에 관한 영역(17.3%)보다 더 많았다. 교육 유목에는 신체 영역, 인지적 영역, 지적 영역, 정서·사회성 영역, 놀이 영역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 결과 인지적 영역(84.7%)과 놀이 지도 영역에 관한 내용(15.3%)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영아의 교육에 대한 초두의 관심은 인지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제도 연계 유목은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유목이 65.7%로,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유목(34.3%)보다 더 많았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제 유목별 내용 분석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월령별 분석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출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 유목에 따라 월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월령별로 볼 때 전체적인 경향은 1-6개월이 가장 많았고, 시기가 지날수록 빈

<표 1>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의 주제 유목 및 하위 영역별 빈도

주제 유목	하위 영역		계(%)**
	영역	빈도(%)*	
임신·출산	태아에 관한 영역	142(17.7)	802(40.3)
	임신부에 관한 영역	660(82.3)	
보 육	발육 일반 영역	280(27.7)	1010(50.7)
	돌보기 영역	267(26.4)	
	건강·위생 영역	242(23.9)	
	영양 영역	221(21.8)	
교 육	신체적 영역	0	111( 5.5)
	정서·사회적 영역	0	
	인지적 영역	94(84.7)	
	놀이지도 영역	17(15.3)	
	특수아 교육 영역	0	
사회지도 연계	의료 시설 연계 영역	44(65.7)	67( 3.3)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영역	23(34.3)	
	대중 매체 연계 영역	0	
총 계			1990(100)

\* 유목 내 하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 전체에서 각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도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주제 유목별로 볼 때는 보육 주제에서만 그러한 추세를 띠고 있었고 나머지 주제 유목에서는 반대로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은 전체 빈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육 주제 유목의 월령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육 유목에서 특히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유나 이유, 수면과 같은 돌보기 영역이었다. 또한 교육 영역에서 놀이지도 영역은 6개월 이전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6-1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가정내에서 놀이를 통한 아동 교육이 비교적 초기에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 지도 연계 주제에서는 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에 영아를 보내기 시작하여 13개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수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육 시설처럼 영아가 종일 맡겨지지 않고 하루 중 일부분만 어머니와 함께 아동 교육 시설에 가는 경우도 7개월 이후에 제법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영아 양육은 12개월까지는 주로 보육 유목이 나타났고, 교육 유목이나 사회지도 연계 유목도 6개월을 전후로 하여

비교적 일찍 영아 양육의 일부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정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인 보육이 비교적 초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일찍부터 영아의 교육이나 사회화도 가정 안에서 전담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주제 유목별 내용분석

### 1) 임신·출산 유목

#### (1) 태아에 관한 영역

태아에 관한 하위 영역은 <표 3>과 같이 내용별로는 태동(62.7%), 태교(25.4%), 태아크기(11.9%)의 순으로 게시물이 많았다. 태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임신부가 태아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태동을 경험한 임신부의 느낌은 “며칠 전부터 뭔가 꼬물꼬물 거리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게 소화가 되면서 나는 느낌인지 태동인지 긴가민가 하다 어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혹시 태동인가 싶어 수시로 배에 손을 얹고 지냈더니만 녀석이 살짝 신호를 보내더군요.”라고 쓴 게시물에서 잘 나타나 있다.

주별로 볼 때 21-30주에 가장 많이 몰려서 나타

<표 2> 영아 양육의 주제 유목 및 하위 영역의 월령별 빈도

주제 유목	하위 영역				계(%)*	
	영역	1-6개월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보육	발육 일반 영역	88(31.4)	98(35.0)	59(21.1)	35(12.5)	280(100)
	돌보기 영역	169(63.3)	44(16.5)	36(13.4)	18( 6.8)	267(100)
	건강 위생 영역	95(39.3)	92(38.0)	39(16.1)	16( 6.6)	242(100)
	영양 영역	86(38.9)	96(43.4)	33(14.9)	6( 2.8)	221(100)
	소 계	438(43.4)	330(32.6)	167(16.5)	75( 7.5)	1,010(100)
교육	인지적 영역	1( 1.0)	28(29.8)	29(30.8)	36(38.4)	94(100)
	놀이지도 영역	3(17.6)	8(47.0)	4(23.5)	2( 4.9)	17(100)
	소 계	4( 3.6)	36(32.4)	33(29.7)	38(34.3)	111(100)
사회지도 연계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	2( 4.5)	1( 2.3)	21(47.7)	20(45.5)	44(100)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영역	0( 0)	9(39.1)	5(21.7)	9(39.2)	23(100)
	소 계	2( 2.9)	10(14.9)	26(38.8)	29(43.4)	67(100)
총 계		444(37.4)	376(31.6)	226(19.0)	142(12.0)	1,188(100)

\* 각 영역내에서의 월령별 비율

〈표 3〉 임신·출산 유목의 주별·내용별 분포

하위 영역	내 용	1-10주	11-20주	21-30주	31-40주	계(%)*
태아에 관한 영역	태교	6	12	14	4	36(25.4)
	태아의 크기	2	0	4	11	17(11.9)
	태동	14	21	33	21	89(62.7)
	계(%)**	22(15.5)	33(23.2)	51(35.9)	36(25.4)	142(100)
임산부에 관한 영역	입덧	16	5	0	0	21( 3.2)
	정기검진	5	21	99	69	194(29.4)
	체중증가	7	27	51	77	162(24.5)
	대소변	0	1	9	1	11( 1.7)
	출산준비	0	7	14	85	106(16.1)
	질병	4	8	14	9	35( 5.3)
	산후조리	0	0	4	16	20( 3.0)
	우울증	1	3	5	68	77(11.7)
	음식섭취	3	6	5	3	17( 2.6)
	불면증	0	0	6	11	17( 2.6)
계(%)**	36(5.4)	78(11.7)	207(31.4)	339(51.4)	660(100)	
총 계		58(100)	111(100)	258(100)	375(100)	802(100)

\* 동일 하위 영역내 각 내용별 백분율

\*\* 동일 하위 영역내 주별 백분율

났고, 1-10주에 가장 적었다. 21-30주에 가장 많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 시기가 임신 5개월 이후로 입덧이나 임신 초기의 불편한 신체 증상이 사라지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1-10주에 게시물이 적은 이유는 초기에 안정이 필요하거나 입덧과 같은 불편한 신체 증상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2) 임신부에 관한 영역

임산부에 관한 하위 영역에서는 〈표 3〉과 같이 정기검진 29.4%, 체중증가에 따른 신체적 증상 24.5%, 출산 준비 16.1%, 우울증 11.7%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 검진은 21주 후부터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정기 검진에 대한 내용으로는 어떤 병원이 좋은지, 병원에서 태아에 대해서 혹은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정기 검진이 임산부에 관한 하위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현재 임신과 출산이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다.

체중증가에 따른 신체적 증상은 정기 검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임신 중의 체중 증가가 임신 후 체중 증가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보통 임신 말기까지 약 12kg의 체중증가가 있게 된다(유안진, 1992: 193-221). 그러나 대부분의 임산부가 12kg이상 체중이 증가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출산 준비, 우울증, 질병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신체상도 변화하고 출산 후의 삶이 걱정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출산 주제 유목에서 태아에 관한 하위 영역은 17.7%(142건)인데 비해 임산부에 관한 하위 영역은 82.3%(660건)으로 임산부 자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임산부들이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하고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주부 대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종종 간과된다. 예를 들어 임산부를 위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입력해 놓



으면 매달 혹은 매일 전자메일을 보내서 아기의 태내 크기와 들으면 좋은 태교 음악을 온라인으로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쇼핑물과 연계하거나 자체 쇼핑몰에서 출산 준비물을 사도록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에서 임신부에게 보내는 메일의 주된 내용은 태교나 머리 좋은 아이 낳기 등이고 임신부의 우울증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임신 육아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임신과 출산을 당사자인 여성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머리 좋고 튼튼한 아동을 출산하는 매개물로서의 모성을 파악하는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반영한다. 주별로는 봄 때에는,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내용이 나타났다가 점점 많아져 임신 마지막 시기인 31-40주에 임신부가 겪는 문제가 가장 많음이 드러났다. 이는 임신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임신부들에게 안전한 출산에 대한 지침이나 조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보육 유목

### (1) 발육 일반 영역

발육 일반 영역은 총 280건으로 이 중에서 신체 운동 발달이 59.6%(167건)로 가장 많았고 언어발달이 21.8%(61건), 정서 발달이 18.6%(52건)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 운동 발달은 치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쓴 게시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키나 머리의 크기에 관한 내용, 나머지는 걷기, 손가락 빨기 등의 순이었다. 각각의 발육 내용을 월령별로 살펴보면 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가장 많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언어 발달은 전체 61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웅얼이와 말하기였다. 월령별로 보면, 생후 6-12개월에 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3-24개월이 30.5%로 그 다음이었다. 이 결과를 생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울음과 쿠팅(cooing)과 웅얼이를 시작하고, 생후 11개월이 되면 의미있는 첫 말을 하다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보편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조복희, 1999: 181-184)는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얼마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2개월 이후에 아동의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일어나므로 이에 관한 어머니들의 보고가 13개월 이후에 더 많이 게시판에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6-12개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12개월을 전후로 하여 아동이 첫 말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신기하고 의미있는 일이어서 게시판에 많이 보고하는 반면, 그 이후의 언어 발달은 언어의 양은 많아지지만 부모에게는 처음 보다 덜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는 <표 4>에서 가장 높은 빈도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언어 발달이 7-12개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실 7-12개월의 영아가 하는 말의 빈도보다는 그 이후 시기의 빈도나 내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7-12개월의 게시물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처음에 자녀가 입을 떼기 시작할 때는 신기하고 예뻐서 그걸 게시판에 올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기함이 사라져 게시판에 보고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영아의 다른 발육에 관해서 보다 뒤집기가 게시물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뒤집기는 아동의 행동 발달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발달 현상보다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영아기의 정서발달은 전체 52건으로 미소짓기, 울기와 같은 감정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발육 일반 영역 중에서는 18.6%를 차지하였다. 시기에 따라 볼 때는 19-24개월이 45.8%(1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3-18개월로 약 23.7%(14건)였다. 1-6개월은 미소짓기 등이 많았으며 18-24개월에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출생에서 3개월까지로서 응시, 미소 그리고 잠으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다(조복희, 1999:193-207)는 아동의 정서 발달 단계에 부합한다. 특히 생후 초기에 아동이 미소짓거나 응시하는 것을 신기하고

〈표 4〉 보육 유목의 월령별 내용별 분포

하위 영역	내 용	1-6개월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계(%)*
발육 일반	신체 운동 발달	69(78.4)	56(57.1)	27(45.8)	15(42.8)	167(59.6)
	언어 발달	2( 2.3)	37(37.8)	18(30.5)	4(11.4)	61(21.8)
	정서 발달	17(19.3)	5( 5.1)	14(23.7)	16(45.8)	52(18.6)
	소 계(%)**	88(100)	98(100)	59(100)	35(100)	280(100)
돌보기	대소변 훈련	0	6	19	14	39(14.6)
	혼자 재우기	8	2	0	1	11( 4.2)
	보채기	2	1	1	0	4( 1.5)
	잠버릇	9	8	0	0	17( 6.4)
	밤낮 바뀜	5	0	0	0	5( 1.9)
	밤중 수유	3	2	0	0	5( 1.9)
	젖병떼기	0	0	5	1	6( 2.3)
	영아용품 구비	142	25	11	2	180(67.4)
	소 계(%)**	169(63.3)	44(11.5)	36(13.5)	18( 6.7)	267(100)
건강·위생 영역	예방접종	21	14	4	0	39(16.1)
	감기	15	21	16	8	60(24.8)
	변비(설사)	11	10	4	4	29(11.9)
	병원 선택	2	1	0	0	3( 1.2)
	태열	24	9	3	0	36(14.8)
	피부질환	13	32	6	3	54(22.3)
	장염	8	2	4	0	14( 5.8)
	안질환	1	3	0	0	4( 1.6)
	약	0	0	2	1	3( 1.2)
	소 계(%)**	95(39.3)	92(38.0)	39(16.1)	16( 6.6)	242(100)
영양 영역	분유	10	17	3	0	30(13.6)
	우유	10	12	3	3	28(12.6)
	모유	36	20	2	0	58(26.1)
	이유식	23	44	18	0	85(38.3)
	편식	3	1	3	2	9( 4.0)
	영양제	3	1	0	0	4( 1.8)
	폭식	0	0	0	1	1( 0.4)
	군것질	1	1	4	0	6( 2.2)
	소 계(%)**	86(38.9)	96(43.4)	33(14.9)	6( 2.7)	221(100)
총 계		438(100)	330(100)	167(100)	75(100)	1010(100)

\* 하위영역내 각 내용별 소계

\*\* 하위 유목내 월령별 백분율

기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 19-24개월에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 이 시기가 자율성 발달 단계로 '아니야', '내 꺼', '싫어' 등의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시기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2) 돌보기 영역

돌보기 영역은 보육 유목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나타난 하위 영역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영아용품 구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아용품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느 것이 좋

은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월령별로는 1-6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주로 영아 용품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영아 용품 구비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많은 게시물은 영아의 대소변 훈련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는 전체 39 건으로 13-18개월에 1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19-24개월(14건), 7-12개월(6건) 순이었다. 이는 대변과 소변을 통제할 수 있는 근육과 신경의 성숙은 생후 6-7개월이 되어야 이루어지며, 6-7개월이 되어 근육과 신경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되어야 아기의 의지로써 통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아동 발달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조복희, 1999: 153-155).

대소변 훈련 외에 잠버릇 64%(17건), 혼자 재우기 4.2%(11건), 밤낮 바뀔 1.9%(5건), 밤중 수유 1.9%(5건)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아를 혼자 재우는 문제로 1-6개월이 되면 혼자 재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관계를 부부관계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어머니가 데리고 자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나라에서 6개월 이하의 자녀를 혼자 재우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수면에 관한 내용을 기간별로는 살펴보면 1-12개월 사이가 대부분으로, 아동의 수면에 관련된 어려움은 첫 돌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소수이나 아이 보채기에 관한 내용과 젖병 떼기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

### (3) 건강·위생 영역

보육 주제 유목내의 하위 영역 중 건강·위생 영역의 월령별 내용별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이 총 242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중에서 감기가 24.8%(60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서로는 피부질환 22.3%(54건), 예방 접종 16.1%(39건), 태열 14.8%(36건), 변비(설사) 11.9%(29건), 장염 5.8%(14건), 안 질환 1.6%(4건) 등의 순이었다. 즉 감기나 피부 질환과 같이 잦은 질병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이 예방 접종, 마지막으로 태열

이나 장염, 안 질환과 같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질병 순으로 다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감기나 변비는 영아에게 잘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에 관해 약 먹이는 법, 주의해야 할 것, 민간 요법 등에 관해서까지 게시물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월령별로 볼 때는 1-6개월 사이가 39.3%(95건)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이 7-12개월(38.0%), 13-18개월(16.1%), 19-24개월(6.6%) 순이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6개월 이내인 영아의 건강문제가 어머니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줌을 알 수 있다. 출생 후 6개월 이전까지는 태내에서 모체로부터 가지고 나온 면역력으로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6개월 이후보다 오히려 적은데도 가장 많은 전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 출산을 하여 자녀에 대한 염려가 지나친 어머니의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경우에서도 12개월 이후에 더 급격하게 어휘수도 늘고 문장도 발달하는데 비해 게시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어머니의 신기함이나 경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때, 혹은 부모 교육이나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아동의 발달에 관한 정보보다는 그것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4) 영양 영역

보육 주제 유목 중 영양에 관한 하위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전체 221건 중에서 이유식에 관한 내용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모유 수유로 26.1%(58건), 분유 13.6%(30건), 우유 12.6%(28건), 그 외에는 편식, 군것질, 영양제, 폭식 순이었다.

이유식은 영양 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생후 2, 3개월부터 과즙을 시작으로 하여 6개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약 18개월 정도

에 끝마치게 되는 이유 과정(유안진, 1992: 242-245)은 본 연구의 월령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모유에 대한 관심은 전체의 26.1%로 분유에 대한 관심(13.6%) 보다 더 많았다. 반면에 분유 수유에 관한 내용은 어떤 분유가 좋은지,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분유 타는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게시물로 올라와 있었다.

월령별로는 7-12개월 사이가 43.4%(96건)로 많았고, 그 다음이 1-6개월(38.9%), 13-18개월(14.9%) 순이었다. 7-12개월은 이유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7-12개월 사이의 이유식에 관한 내용은 44건으로 월령별, 내용별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는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든 분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든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식 조리법이나 쉽게 만드는 이유식 등이었다.

### 3) 교육 유목

#### (1) 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습지가 88.3%(83건)였고, 도서가 11.7%(11건)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영아에 대한 인지적 교육이 학습지와 도서를 도구로 하며, 특히 학습지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월령별로 살펴보면, 학습지는 적어도 7-12개월에 시작하였고, 도서는 그보다 더 일러서 1-6개월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를 둔 어머니

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아주 조기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들의 교육이 주로 학습지나 교구의 구매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어린 나이의 자녀에게도 어머니 스스로에 의한 교육보다는 구매를 통한 교육 관련 기관에 의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에 관하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정윤이 이제 26개월 들어섰습니다. 올 집에 오는 분들 다 그러죠. ‘아이 기르는 집치고 돈 엄청 안 썼다고... 요즘 다들 몇 개씩은 있는 전집세트가 전혀 없거든요. 올 시누이 전집 하나 없이도 애 똑똑하게 길러 내는 것보고 그래, 저거야... 하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과연 그 정도로 부지런히 혼자 교재 만들어 가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의 교재들 힘을 빌기로 대충 맘을 굳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어머니가 가정에서 직접 영아를 교육하기 보다 사회적 기관으로 교육 역할을 이양하고 있으며, 그 이양 방식이 소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부모 교육이나 아동 교육과 관련한 연구나 산업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놀이지도 영역

교육 유목 중 놀이지도 영역은 놀이감에 관한 내용이 전부였다. 놀이감에 대하여 1-6개월 사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7-12개월 사이였다. 주로 어떤 놀이감이 좋은지, 어디에서 구매하는지에 관한 구매에 관한 내용으로 위의 인지적 영역에 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표 5〉 교육 유목의 월령별 내용별 분포

하위 영역		1-6개월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계(%)*
인지적 영역	학습지	0	25	24	34	83(88.3)
	도서	1	3	5	2	11(11.7)
	계(%)**	1(1.1)	28(29.8)	29(30.8)	36(38.3)	94(100)
놀이지도 영역	놀이감	3(17.6)	8(47.1)	4(23.5)	2(11.8)	17(100)
	총 계	4(100)	36(100)	33(100)	38(100)	111(100)

\* 동일 하위 영역내 각 내용별 백분율

\*\* 동일 하위 영역내 월령별 백분율

〈표 6〉 사회 제도 연계 유목의 월령별 내용별 분포

하위 영역		1-6개월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계(%)*
아동 보육시설 연계	어린이집 보내기	2	1	21	20	44(65.7)
아동 교육시설 연계	시씨다 교육원	0	0	0	3	3( 4.4)
	짐보리	0	9	5	6	20(29.9)
총 계(%)**		2( 2.9)	10(14.9)	26(38.8)	29(43.4)	67(100)

\* 사회제도 연계유목내에서 백분을

\*\* 동일 하위 영역내 월령별 백분을

비교적 일찍부터 아동을 위한 놀이감을 주로 구매를 통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 제도 연계 유목

사회제도 연계유목은 아동 보육 시설 연계와 유아 교육 시설 연계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은 어린이집 보내기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 제도 연계 유목 전체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가? 언제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은가? 등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월령별로 볼 때는 1-6개월부터 어린이집 보내기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아동 보육의 기능이 매우 일찍 가정에서 사회적 제도로 이양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13개월부터 어린이집 보내기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더욱 뚜렷해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취업 여성의 증가와 아동 보육 시설의 확대가 맞물려 나타났으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영역은 사회 제도 연계 유목 내에서 3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어머니와 영아가 일정 시간동안 시씨다 교육원이나 짐보리와 같은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를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과 비교하여 볼 때, 7-12개월 사이에는 아동 보육 시설 연계 영역보다 빈도수가 더 많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아동 교육 시설 연계 영역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처럼 일찍부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사회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아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 이처럼 일찍 영아를 교육하

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은 가정 내에서가 아니라 가정 밖에서 소비와 구매, 아동 교육 기관에의 참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이 매우 일찍 교육 용품의 구매, 사회 제도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사회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아동 교육 기능이 조기에 사회적으로 이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부모 교육의 내용에는 어머니의 자녀 교육 방법뿐 아니라 이러한 자녀 교육열에 편승한 무분별한 아동 교육 산업을 비판적으로 변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PC 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 양육의 주된 내용은 보육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영아 돌보기, 영아의 발육 일반, 건강, 위생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나 PC 통신에서 영아 양육에 대해 다루어야 할 내용은 주로 보육에 관한 부분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아 돌보기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영아용품 구비에 관한 것으로 주로 구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과를 교육 영역에서 영아 교육이 학습지나 교구 등

의 구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영아 양육의 각 주제 유목에서 구매나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이나 소비자 교육에 참고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월령별로 볼 때 아주 일찍부터 아동 교육 기능이나 보육 기능이 사회로 이양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가족이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을 전담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문소정, 1991), 가정 내에서는 자녀 교육의 부수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을 나타낸다. 가정의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가정의 시장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와 교육적인 놀이를 하는 방법이나 교구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임신·출산에 관한 유목에서 임신부들은 태아에 대해서보다도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체중 증가나 우울증에 관한 내용도 다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임신부들이 모성으로써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에 관한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임신부들을 돌봐 주어야 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영아 양육으로 인한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육아 사이트 개설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 교육을 위한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영아 양육에 국한한 것인

지 아니면 아동 양육의 전반적인 경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아뿐 아니라 유아, 학령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PC 통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의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선주(2000). 정보사회와 가족: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167-183.
- 문소정(1991). 일제하 한국 농민 가족에 관한 연구-1920-30년대 빈농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양재, 김영주(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I).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6.
- 유안진(1992). *아동양육*. 문음사.
- 조복희(1999).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 차배근(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 홍성태(1999). 사이버 문화: 개념, 특성, 이미지. *사이버 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43-69.
- 동아일보. 1999년 8월 4일. B7면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 Gibson, W. (1984) 노혜경 역. (1996). *뉴로맨서*. 열음사.
- Gilbert, L. A. & G. R. Hansen(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J. M. F.*, 45, 203-212.
- Nye F, J. (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London: Sage publication.
- <http://forum.hitel.net/club/jubu>.
- <http://www.jubu21.or.kr>